제주연구원-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
학술교류 및 기체결 기관 방문

2018. 5

제주연구원

Ⅰ. 출장개요

□ 목적

○ 제주연구원은 중국연구센터 설립 이후 중국 내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

○ 2017년 제주연구원은 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과 '제주-해남 관광 협력방안'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

- 또한 해남성은 2018년 경제특구 지정 30주년이 되는 해이며, 올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접점이 될수 도 있음
- 이는 향후 중국 해상실크로드 구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로써 해남성과의 교류확대 및 주변 국가 활용전략을 연계할 수 있을 것임
- 따라서 이번 학술교류를 통해 공동연구 추진에 대한 성과와 향후 제주-해남 간의 심화 연구 및 지속가능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○ 아울러 중국 사회과학원 아·태 글로벌 전략연구원과 2012년 MOU 체결 이후 매년 정기학술교류 개최를 통해 한중 관심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

○ 이는 한중 싱크탱크 협력을 더욱 깊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며, 한중 학술교류 강화와 한중 싱크탱크의 정책결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

○ 이에 본 출장에서는 제주연구원과 기체결된 기관방문을 통해 공동세미나 개최 및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향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 설정 등을 협의를 조율하는데 의의가 있음

□ 기 간 : 2018년 5월 14일 ~ 5월 18일(4박 5일)

□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:

○중국: 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,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 전략연구원

□ 여행자 인적사항 : 강창민 (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), 정지형 (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)

□ 주요일정

월 일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 기관	업무수행내용 (수집할 자료목록, 질의할 내용 등)	접촉예정인물 (직책포함)
5월 14 (월요일)	제주	홍콩	(이동)	• 제주 출발(08:00)→김포 도착 • 인천 출발(13:25) → 홍콩 도착 (17:20)	
5월 15일 (화요일)	하이커우 시		(이동)	• 홍콩 출발(11:10) → • 하이커우 도착(12:45)	
			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	•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주제: '제주-해남 협력방안(안)' - 하이난 자유 무역항 지정에 따른 제주 국제자유도시 연계성 모색	- he dong ni 대외교류처장 - gan lu 해남연구소장
5월 16일 (수요일)	하이커우 시		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	• 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 간담회 -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방안 논의	-he dong ni 대외교류처장 -wei wen feng 국제경제연구소장
			(이동)	• 하이커우 출발(13:10) - • 북경 도착(16:50)	
5월 17일 (목요일)	북경		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 전략연구원	• 중국 사회과학원 간담회 - 2018년 제주연구원 학술교류 논의 - 최근 사드후 한중 관계 및 대중 외교정책 의견 청취	- li xiang yang 원장 - piao guang ji 처장
5월 18일 (금요일)	북경	제주	(이동)	• 북경출발(10:50) → 제주 도착 (14:25)	

Ⅱ. 출장내용

1) 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

□ 개요

○ 일 시 : 2018. 5. 15.(화) 15:00~18:00, 2018. 5. 16.(수) 09:00~10:30

○ 장 소 : 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 4층 회의실

○ 참여자 : he dong ni 부원장, gan lu 해남연구소장, wei wen feng 국제경제연구소장, 尹子津 연구원, 강창민 선임연구위원, 정지형 책임연구원

□ 주요내용

○ 현재 해남도는 경제특구지정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유무역항으로 탈바꿈하고 있음

- 2018년 4월 13일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해남성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언급하였음
- 이는 자유로운 무역개방, 투자개방, 물류이동, 세금, 자금 이동 등 해남도 전 지역의 개방화와 중국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통해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임

○ 이와 관련하여 본 세미나에서 발표한 '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' 및 '제주 미래 비전'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

- 제주의 경우 국제자유도시, 특별자치제도를 통해 제주의 지방자치와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음
- 따라서 제주의 사례 등을 통해 중국측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함

○ 이와 관련하여 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에서 지속적이고 심화된 공동연구를 제의하고 있음

- 양 지역의 국제개방화 수준에 대한 지수로써의 분석, 이에 따른 시민 만족도 조사 등
- 신재생에너지, 투자유치, 개발제한 등 제주와 유사한 공통 관심사

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제의하였음

○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에 의거해 해남성과 중앙정부 관계, 경제특구 및 자유무역항 조성에 따른 행정체계 및 관광, 의료,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
- 세부적인 주제로써, 행정체계, 생태환경(스마트 아일랜드), 쇼핑(면세점 등), 신재생에너지, 도시계획, 주민 복지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계적 연구를 제의하였음

○ 중국은 해양정책와 관련하여 최근 시진핑 집권이후 해양 강성전략을 펼치고 있음

- 해남의 경우 해양어업(원양어업, 가공 등), 해양관광업(크루즈 등), 해양교통운수업(물류 등), 원유업(해양원유 탐사, 가공 등) 4대 산업을 추진하고 있음

- '일대일로' 정책과 '남색경제' 정책을 통하여 해양강국을 이루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이러한 일련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음

○ 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액션플랜에는 내수와 해양 연계방식의 다양한 경제구(발해만/장삼각/해협서안/주삼각(渤海、長三角、海峽西岸、珠三角))와 연해항만도시가 가진 지역적 특성을 살린 협력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 함

- 특히, 푸젠21세기해상실크로드핵심구, 저쟝해양경제발전시범구, 푸젠해협남색경제시험구, 저우샨군도해양신구, 하이난국제관광섬 등의 해양특구를 통하여 해양경제혁신발전시범도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

○ 제주는 지리적으로 위에서 해상실크로드의 선상에 있는 해양경제혁신발전시범구들과 인접하여 있고, 국내법적으로는 국제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주도가 가진 지리/인문적 특성을 살려 중국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향후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 향후 제주-중국 간 해

상협력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○ 이와 관련하여 양지역의 대표 싱크탱크로써 제주-해남, 나아가 한국-중국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정기 학술 교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

- 2018년 10월 혹은 11월 개최하며, 주제는 공통관심사에 대한 주제 선정 후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추진

제주연구원-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 학술교류

2)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 전략 연구원

□ 개요

○ 일 시 : 2018. 5. 17.(목) 11:00~16:00

○ 장 소 : 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 4층 회의실

○ 참여자 : piao guang ji 과연처장, zhong fei teng 대국관계연구실장, 강창민 선임연구위원, 정지형 책임연구원

□ 주요내용

○ 최근 북한-한국-미국의 관계에 있어 한국과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시기임

- 특히 한반도 관계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
- 최근 한중 관계가 완화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예전 한중 관계로의 회복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판단됨

○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의 경우 국제관계, 대중관계 등의 특화된 연구원이므로 향후 한중 관계, 동아시아 관계 속에서의 제주의 역할에 대한 주제 모색이 필요

- 이를 통해 향후 제주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, 제주의 역할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

○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연구원과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음

- 하지만 양 기관의 특화된 주제 발굴과 공통점 모색에 애로사항이 있었음
- 양 기관의 2018년 학술 교류는 12월로 예정되었으며, 하반기에 양 기관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주제선정이 필요함
- 필요 시 중국 사회과학원 측에서 제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 초청을 통해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

정기교류 관련 업무협의

Ⅲ. 시사점

○ 최근 사드사태 이후 한중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향후 한중 및 제주-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

- 특히 중국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지역적 발전방향 등을 분석·파악함으로써 양지역 및 양기관 간 상호 협력수준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○ 본 출장을 통해 제주-중국, 제주-해남 간 협력방안, 연구 일정 등에 대해 양 기관의 입장을 조율함으로서 향후 효율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○ 또한, 향후 양기관의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제주연구원과 중국(해남)개혁발전연구원, 나아가 제주와 해남 간의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

-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에서도 중국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, 해양도시, 한중 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